

News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입장 재확인

서울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내년에도 확고히 유지할 것 밝혀...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
내년 금융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성 크다고 평가하면서 금융 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충소해 금융안정 유지하겠다고 예고

금리인상만으로 부채 못잡아...은행 추가자본 적립 조치 나올까

뉴시스

한국은행 금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에도 불구하고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망
고강도 대출규제로 가계대출은 둔화됐지만 은행의 영업 강화로 기업대출 증가하면서 통화정책 접근만으로는 한계 있다는 지적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자율 이달에만 0.3%p ↑

데일리안

주담대 변동금리 계약 이자율, 이달 들어서만 거의 0.3%p 증가... 연 3.7~5.06%로 20일 만에 하단은 0.27%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한 달 새 0.260%p나 뛰었기 때문... 대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차주 많은 상황으로 해석

보름 만에 11조...은행으로 돈이 몰린다

한국경제

우리은행이 12일에 내놓은 특판정기예금에 닷새 만에 1조원 몰려... 은행 단일 수신상품이 1주일도 안돼 1조원의 한도가 소진된 것은 이례적
시중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회귀하는 역머니무브 본격화...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 16일 기준 1,397조 9,874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1조원 가량 증가

금융위, 실손보험 할인특약 종료 검토... 보험료 4년 만 대폭 오르나

조선비즈

금융당국, 실손보험 가입자 중 850만 명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이 논의 중...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 보험료 대폭 상승 전망
내년 처음으로 3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일괄 두자릿수 인상을 적용될 것...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오르면 논란도 예상

빅테크 압박에 MZ세대 공략까지... 손보사 미니보험 판매 강화

아이뉴스24

손보사들, MZ세대 공략과 더불어 카카오페이손보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미니보험 판매 늘리는 중
빅테크의 시장 선점을 막고 장기적으로 고객군 확보하겠다는 전략...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리

서학개미 직투 열풍 간접투자...전기차·기술주 펀드 인기

데일리안

미국 증시의 연이은 강세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형 공모펀드에 더 많은 투자... 16일 기준 ETF 포함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 22조 2,640억원
투자 유형별로는 전기차·배터리, 기술주, 친환경 에너지 등 주로 테마형 펀드에 자금 몰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역대 최대 수준 기록 중

증권사 메타버스 개척 어디까지 왔나? ... 미래에셋 이어 유진·교보·NH도 참전

아주경제

증권사들, 메타버스에서 영토 확장 중... 투자 상담과 미래고객 확보에 나서... 미래에셋에 이어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도 디지털 지점 및 제페토 구현
다만 메타버스를 통한 상품 판매 상용화시 상당한 시간 소요 필요... 기술적, 제도적 한계 때문... 일차적으로는 증권사 계좌 개설 및 MZ세대 고객 확보에 주력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